



DMZ평화순례단은 7월 26일 철원 노동당사를 출발한 뒤 통제소를 거쳐 민간인통제선 내에서 평화통일을 발원하며 순례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순례단 학생들은 활기찬 모습으로 행사에 임했다.



철원 DMZ지대를 행군하는 모습



파란 한반도티를 맞춰입은 순례단

청소년 불자들, “한반도 평화 책임지겠어요”

한반도평화대회봉행위, 정전60주년 맞아 철원서 DMZ평화순례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민간인통제선 검문소를 지나자 불자 청소년들로 구성된 DMZ평화순례단은 불교기와 태극기를 앞세우고 힘차게 구호를 맞추며 길을 걸었다. 발목 높이 정도로 쳐진 지뢰밭 철조망과 북을 향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군인들 사이에서 순례단에 참가한 학생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긴장과 대립’의 현장을 목도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한걸음씩 발걸음을 내디뎠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비롯해 군가 등을 부르던 순례단은 점차 어느 아이들처럼 밝은 모습을 보였다. 한국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지만 평화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바로 ‘한국전쟁정전60주년한반도평화대회 봉행위원회’(위원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가 한국전쟁 정전 60주년(7월 27일)을 맞아 개최한 어린이·청소년 DMZ 평화순례에 참가한 불자 청소년들이다. ‘통일과 세계평화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7월

26~28일 강원도 철원 DMZ 일대에서 열린 평화 순례에서 이들은 비무장 지대 일대를 직접 걷고 병영 체험 등을 하며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염원했다. 평화 순례에는 전국사찰에서 모인 어린이와 청소년과 불교 스카우트 대원 500여 명이 참가했다.

평화 순례는 철원 노동당사에서의 입제식을 시작으로 철원DMZ 도보 행군과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서의 병영생활, 평화전망대 및 제2땅굴, 월정리역 탐방, 안보교육 및 군장비 관람, DMZ평화콘서트, 6사단 청원사 참배 등으로 진행됐다.

평화 순례는 벌써 30도를 넘는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참가한 학생들은 힘든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이미 버스 안에서 DMZ와 분단 상황 등 역사와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받은 청소년들의 표정은 자못 진지했다. 한창 자유분방한 나이였건만 첫날 북한 노동당사에서 열린 입제식에서 순례단 학생들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흘러 넘쳤다. 수많은 남측 인사들을 고문했던 노동당사는 회색의 콘크리트 뼈대만이 양

상히 남아 긴장감을 더했다. 입제식에서 삼귀의, 반 아신경 봉독이 끝나고 참가 청소년들은 묵념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조계종 어린이·청소년 전법단장 성행 스님은 입제식에서 “평화통일은 민족 스스로의 지혜로만 이룰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조국의 분단 현실을 보고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통일의 일꾼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사찰 어린이·청소년 500여 명 참가 DMZ행군, 평화전망대·땅굴 탐방 진행 ‘평화 소중함 깨달았다’ 한 목소리

조계종 포교부장 송목 스님도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대신해 “최전방 지역을 순례하며 생명평화 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형 6사단장은 “이 곳은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곳”이라며 “미래의 희망인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더욱 더 굳건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안보수호자가 돼 달라”고 순

례단을 격려했다.

이어 입제식에서 응우사 한주형(12세), 이서진(13세) 학생의 평화발원문 낭독과 함께 참가 대중은 한 마음으로 생명평화를 발원했다.

입제식을 마친 순례단은 6사단 검문소를 거쳐 DMZ 지대에서 2시간 가량 평화의 행군을 진행했다. 양 옆으로 나있는 지뢰밭이 무색하게 학생들은 밝은 얼굴로 씩씩한 걸음을 이어갔다.

응우사에서 온 오민호(12세) 학생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사실을 이번 순례를 통해 느꼈다”며 “그 동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군인 아저씨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동원정사에서 온 김도희(10세) 학생은 “북한에서도 이렇게 철조망을 치고 서로 노려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다”며 “소중한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절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행군을 마친 아이들은 6사단 신병교육대로 발길을 옮겼다. 처음 보는 관물대 등 병영생활에 청소년들은 오히려 호기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순례단은 당초 연병장에서 캠핑을 하려했으나 해병대 캠프 사고로 인한 안전상 문제로 교육대에서 숙박이 진행됐다.

정전 60주년인 27일에는 아침예불을 통해 정전일을 기념했다. 이와 함께 평화전망대와 제2땅굴 탐방이 진행됐다. 불자 청소년들의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어린 아이들답게 다양한 질문을 쏟아져 나왔다.

“정전 직전까지 서로를 향해 총탄을 날리던 이 지역은 수십만명의 선열이 희생을 통해 지켜낸 곳입니다. 당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된 백마고지, 피의 능선 등이 바로 저 곳입니다. 특히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제2 땅굴이 있는 곳에서 북한 지역은 불과 1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들도 북한에서 보고 있는 건가요?” “왜 북한이 판 땅굴이 더 많지는 않아요?” “전망대 앞쪽에도 모두 그럼 지뢰밭일건가요?”

처음보는 북한의 모습에 순례단 학생들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정훈교육 이후 순례단 학생들은 생안경을 통해 북한 초소 등을 관찰하고 전망대 교육관에서 안보교육 등을 이어갔다.

“평화 통일, 우리가 이끈다. 평화 통일, 우리가 이끈다.” 순례단은 매 행사마다 구호로 ‘평화 통일’을 외치며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이 땅에 충성이 맺은 그 날 이후 60년, 청소년들의 가슴에 평화의 영글고 있었다. **철원=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6일 철원 노동당사에서 진행된 입제식



27일 평화전망대에서의 정훈교육 모습



■ 순례 대표상을 받은 응우사 민권기 학생의 소감문

먼저 많은 군인아저씨들이 희생을 통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순례에서 DMZ 평화의 행군과 제2땅굴 견학 등을 통해 평화가 소중하며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60년 전 우리는 서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의 희생 속에 우리나라가 지켜졌고, 겨우 휴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대치 상태의 나라를 일구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나라 통일을 이루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어린 우리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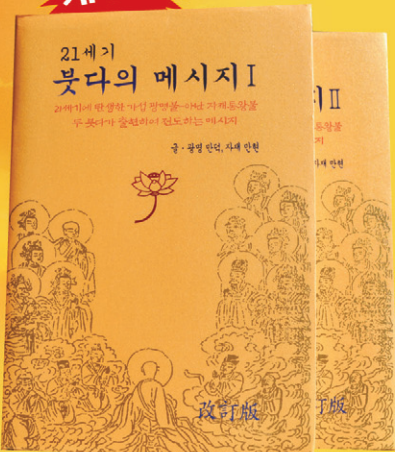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개정판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추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종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미치는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친화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미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참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승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지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강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담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